

아라리오갤러리 - 홍대 거리에 서울 2호점 오픈!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 호텔”

개관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Remembering, or Forgetting> 개최

- 아라리오갤러리, 젊음과 실험, 그리고 문화예술의 중심지 홍대 거리에 서울 2호점이자, 천안, 서울 삼청동, 중국 상해에 이은 아라리오갤러리 4호점 오픈.
- 젊은 청년 작가들과 실험적인 중장년 작가들을 십수년간 묵묵히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아라리오갤러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행보.
- 개관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Remembering, or Forgetting>을 통해 잠재력있는 아시아 젊은 작가 그룹전을 선보이며, 실험과 참신으로 대변되는 ‘홍대’적 시대정신의 원류를 다시 되짚어보고 나아가 되살리는 계기 마련.



4월 24일 개관하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 호텔’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 호텔 지점 오픈 - 2018년 4월 오픈하는 호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 유일한 미술공간으로 입점

아라리오갤러리는 서울 2호점이자, 천안, 서울 삼성동 그리고 중국 상해점에 이은 4호점 갤러리를 2018년 4월 24일 새롭게 서울 홍대거리에 선보인다. 갤러리의 공식명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 호텔'로, 홍대 거리에 2018년 4월 24일 첫 문을 여는 호텔인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RYSE, Autograph Collection)'에 입점한다. "예술, 패션, 음식의 파트너십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호텔의 탄생"을 목표하는 호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 속한 유일한 미술공간으로서, 아라리오갤러리는 세계 각지의 크리에이터, 예술가, 음악가들이 자유롭게 문화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 호텔'은 4월 24일 개관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Remembering, or Forgetting (2018.4.24 - 6.17)>으로 그 첫 문을 연다.

■ 젊은 작가와 실험적인 중장년 작가를 십수년간 묵묵히 지원해온 아라리오갤러리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전시공간을, 현재가 아닌 과거 젊은 작가들의 거리였던 곳에
세워 새롭게 '홍대'적 시대정신의 원류를 찾고자 시도.

아라리오갤러리의 새 공간이 들어서는 '홍대'라는 지역성은 단순히 홍익대학교 인근을 지칭하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홍대' 인근에서 가시화된 실험, 시도, 참신, 변화 등 젊은 세대들의 문화, 예술적 시대정신을 상징한다. 시간이 흘러 그 의미는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술계에서 '홍대'라는 지역이 표출하는 의미는 단순한 지리적 명명을 넘어선다. 그런 까닭에 현시점에 2018년을 살아가는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고민과 여러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을 '홍대'라는 상징적 장소에서 선보이는 행위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아라리오갤러리는 지난 십수년간 국내외 젊은 작가와 실험적 정신이 강한 중장년 작가들을 지속적이면서도 묵묵히 지원해왔다. 국내 최초로 갤러리 전속작가제도를 도입한 아라리오갤러리는 2002년 천안 갤러리를 시작으로 서울, 베이징, 상해, 뉴욕 등지에 갤러리 공간을 오픈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갤러리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전시 뿐 아니라 지속적인 작가 지원은 창업주인 (주)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의 전폭적인 후원아래 가능했다. 홍대거리에 새롭게 전시 공간을 여는 금번 아라리오갤러리의 행보는 지난 십수년간 작가들을 지원해온 이러한 '아라리오 정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험적이고 참신한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홍대거리'에 흔적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홍대적 시대정신'의 원류를 다시 되짚어 보고 나아가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가 정신의 불씨를 새롭게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라이즈호텔 개관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Remembering, or Forgetting>



우지 (하한) 한도코 예코 사푸트로 Uji (Hahan) Handoko Eko Sputro, *Baby Booming*, 2015-18, Neon sign, acrylic on canvas, play wood, brass, Dimensions variable

전시 제목	국문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영문 Remembering, or Forgetting
참여 작가	아츠로 테루누마, 아사미 키요카와(이상, 일본작가), 우지 하한(인도네시아 작가), 쉬 바청(중국 작가), 김인배, 권하윤, 돈선필 (이상, 한국작가)
전시 기간	2018 년 4 월 24 일 화요일 - 6 월 17 일 일요일
전시 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즈 호텔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30, 라이즈 호텔, B1)
전시 작품	회화, 설치 및 영상 25 여점
관람 시간	화요일 - 일요일 10:00 - 19:00

아라리오갤러리는 2018년 4월 24일 새롭게 문을 여는 네 번째 전시 공간의 개관전을 위해 그룹전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Remembering, or Forgetting>을 준비했다. 본 전시는 아시아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작가들로 구성된 그룹 전시로, 일본작가 아사미 키요카와, 아츠로 테루누마, 인도네시아 작가 우지 (하한) 한도코 에코 사푸트로, 중국작가 쉬 바청, 그리고 한국작가 김인배, 권하윤, 돈선필, 총 4개국 7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는 상상력이 발현되는 지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보르헤스(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Jorge Luis Borges, 1899-1986)는 상상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난 상상력이 기억과 망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우리의 정신은 망각으로 수많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구멍은 조금씩 메워질 것이라 진단했다. 그렇다면 작가로 명명되는 이들은 그 사라져가는 것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반-의지적으로 발생하는 망각의 늪과 그 경계선에 흔적처럼 남았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기억들을 부여잡고 있는 이들이며, 그 과정에서 상상력은 발현되는 것인가? 본 전시는 이들 예술가들을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들, 즉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 선 이들로 상정하고, 작가들이 그 경계선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맥락없이 고집어 올려내는 상상력들을 펼쳐보는 하나의 장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작가 아사미 키요카와는 기억이나 느낌에 기반해 특정 인물이나 대상의 기저에 깔린 무의식의 지층들을 고집어 내 자수와 바느질 작업으로 표출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아츠로 테루누마는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의 관계 연구에 천착하는 작가다. 본 전시에서 선보이는 대표 작품에서는 눈 뜨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현 사회의 너무 과한 시각적 자극을 매일 겪는 현대인의 일종의 시각적 강박과 열등의식,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작가의 열망을 표현했다. 인도네시아 작가 우지 하한은 2000년대 중 후반 미술시장 호황기를 바라보며 성장했던 기억에 기대어 당시의 희망과 그 이후의 좌절을 동시대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치환했고, 이를 작가 특유의 만화적 묘사법에 기대어 표현했다. 중국작가 쉬 바청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도박에 미쳐가는 동시대 중국사회에 대한 비판을 기저에 깔고, 작가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조금씩 뒤틀리거나 극도로 예민해 보이는 인물들과 갖가지 은유와 알레고리적 형상들이 뒤죽박죽 뒤섞여 만들어내는 인간풍경과 그 속에서 스며 나오는 현대인의 답답한 심리가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공간이다. 김인배 작가의 작품은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정해진 구조나 규칙, 이미 정립되어버린 사고의 회로에서 물음과 의문을 이끌어내고 사고의 확장을 유도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권하윤 작가는 비무장지대(DMZ)를 지배하는 집단 기억이 아닌 여러 사적 기억이 구성해내는, 실재하면서도 비현실적인 비무장지대를 상상력 넘치는 방식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돈선필 작가는 사물과 그 사물에 내재된 기억의 덩어리들을 닦치는 대로 쓰레기 통에 버린 후, 기억과 망각의 경계선에서, 혹은 기억과 발화의 경계선에서 꿈틀거리며 구조를 뚫고 나가려는 욕망 혹은 시도들을 표현했다.

작품이미지



아사미 키요카와 Asami Kiyokawa, *Because I am a Woman*, 2017, Non-woven fabric, approx. 174 x 276 cm



아츠로 테루누마 Atsuro Terunuma, *Mienai Nozomi's Vision Complex*, 2017, Acrylic paints, pen, ink on wood panel, 180 x 270 cm (3 panels)



쉬 바청 Xu Bacheng, *Survival and Destiny*, 2016, Oil on canvas, 220 x 800 cm (4 parts / 200cm width each)



(상세 사진) 쉬 바청 Xu Bacheng, *Survival and Destiny*, 2016, Oil on canvas, 220 x 800 cm (4 parts / 200cm width each)



김인배 Kim Inbai, *감긴 눈_Closed eyes*, 2017-18, Resin, 102 x 65 x 126(H) cm



(영상 스틸) 권하윤 Kwon Hayoun, *489 Years*, 2016, HD video, 11 mins



돈선필 Don Sunpil, *Owakon*, 2018, Figure, wood, spray paint, urethane foam, dustbin, industrial products, 85 x 105 x 170(H) cm

이미지 다운로드 안내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ID: arariogallery / PW: arario

내리기전용 → 2. ARARIO GALLERY RYSE HOTEL -> 기억하거나, 망각하는

이미지 제공: 아라리오갤러리

연락처

전시팀 | 강소정 팀장 M. 010-9256-1491

E. sojung.kang@arariogallery.com

전시팀 | 허일우 담당 M. 010-7704-3333

E. ilwoo.huh@arariogallery.com